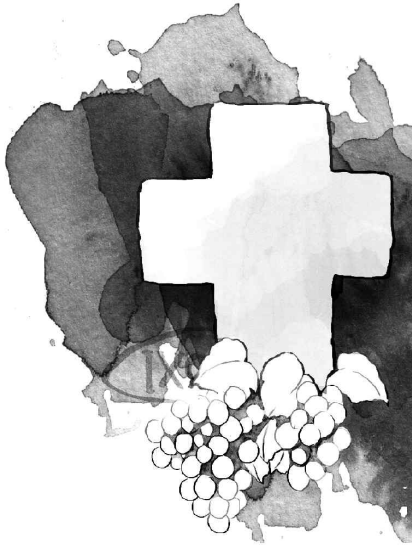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8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35. 큰 영화로신 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삼복 무더위 속에서 쉽게 지치고 몸과 마음이 곤고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삶의 보폭을 줄이고 쉬엄쉬엄 길을 가되, 가야 할 곳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청파교회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 함께 어울려 지내는 시간을 통해 삶이 기쁨이요 은총임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79. 요한복음 15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이형숙 권사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189. 진실하신 주 성령 다 함께

- ▲ 성경봉독 마 6:1-4 I. 인도자
II. 김정훈 집사
봉독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찬 양 I. 은혜의 강가로 I. 여성중창단
II. 내 주의 은혜 강가로 II. 찬양대
-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x2)
-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영혼 위에
-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 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 년이 가도 영원히
 왕께 만세 만왕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왕
 께 만세 내 주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하라

말 씬	나팔을 불지 말아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새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누군가 내게 베푼 선한 일을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 함 께:	아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불통거리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흘려보내고 좀 더 의연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이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떼제 ‘화해의 교회’

로제 수사는 젊었을 때부터 ‘인류 가족의 화해’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가 떼제로 와서 살기 시작한 1940년은 유럽이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2차 대전이 극심할 때였다. 그는 하느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현장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고국 스위스는 너무나 평온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나라 프랑스로 들어와 동부 부르고뉴의 떼제에서 정치 난민을 맞이했다. …

전쟁이 그칠 무렵 떼제 근처에는 작은 규모의 독일군 포로수용소가 두 군데 세워져 있었다. 로제 수사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 수용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일요일에 포로들을 떼제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

1950년대 후반부터는 떼제 방문자의 수가 차츰 많아졌고 예배 때 마을 성당이 비좁아 모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성당 마당에 서서 참가하기도 했지만 비가 오면 낭패였다. 더 큰 교회를 지어야 했다. 그때 ‘속죄의 활동’이라는 단체를 통해 독일 젊은이들이 대거 떼제로 와서 건설을 도왔다. 독일 개신교회를 배경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전쟁 동안 독일의 적국이었거나 독일이 점령했던 나라에 젊은이들을 파견해서 학교나 병원, 교회를 짓는 노력 봉사를 하면서 속죄를 실천하고 화해의 밑거름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새로 지은 교회는 1962년 8월에 낙성식을 가졌고 ‘화해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개신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이 이 화해의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떼제에 도착한 1980년대 말까지도 화해의 교회 입구에는 나무판에 손글씨로 쓴 이런 글귀가 여러 나라 말로 붙어 있었다.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과
남편은 아내와
믿는 이는 믿지 않는 이와
그리스도인은 갈라진 그의 형제들과...

정치적으로 뜨거웠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떼제에서 열린 젊은이 모임의 주제는 ‘투쟁과 관상(깊은 기도)’이었다. 많은 나라에서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기성세대와 체제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로제 수사는 가난한 이들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쟁과 더불어, 내적인 감옥에서도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의 투쟁’도 필요함을 젊은이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또 무엇보다 그런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내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관상’(Contemplation)이라는 깊고 내밀한 기도를 강조했다. ‘명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관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한 것이다.

당시에 떼제는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보수적인 쪽에서 보기에 떼제는 너무 진보적이었고, 진보적인 사람들에게는 떼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비쳤다. 한쪽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젊은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았고, 다른 쪽에서는 기성 체제의 일부인 교회를 떠나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두 가지 사이에 긴장을 유지하면서 둘 다 붙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성향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비결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떼제의 모임 주제는 기도와 사회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내적 생활과 인류의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다. 영적인 추구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현실도피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굳이 그런 커다란 주제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성적, 사회적 주제를 다룬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그들의 맛

- 이규리

한 복숭 나무에 어떤 열매는 붉고 어떤 열매는 파랗다
넌 누굴 닮아 그 모양이니?
그때마다 더 파래지곤 했다
어떤 이는 손바닥 하나를 뒤집어 새를 날리고 장미를 꺼내지만
손바닥을 뒤집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신 그들을 먼저 배우는 거랄까
그들의 맛, 그러니
복숭이 간신히 내놓은 까슬한 뺨을
꼭꼭 눌러 확인하지 마라
여기까지 먼 길,
파란 열매는 얼마나 가혹한 자책이겠느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관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이혜경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정규 이종옥 김정근 김정민 이해령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광혜자 김지운 김정영우 김진우 김임미진 박다니엘 박영희
 박상욱 임서영 송인선 신진식 변혜정은종인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완구
 이유선 이유진 이증자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정현선 유병선 최미자
 최윤선 최윤희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추현영 홍소

감사헌금

김동영 김성우 박유경 김영란 문병욱 박진주 신영신 신진식 변혜정 오현우
 유수진 이래헌 윤은례 임선양 신현숙 정영례 하현일 김광우 무명19

녹색꿈헌금

신영신 윤미경 유수진 이한림 김명희 무명2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섭	수요일 집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떼제 찬양과 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2. **신앙실천**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과 바다 등 머물렀던 자리를 늘 깨끗하게 치웁시다.

교육부 여름 행사
 중고등부 : 8월 4-6일, 고성 초도리 마을회관에서
 청년부 : 8월 3-6일, 단양 유암교회에서 (농활)

다음 주 설교 본문 전 3:9~13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김기석	정원석

	1부 영접위원	곽권희	헌금위원	박숙미
8월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송동준	강세기 정경례 박경원	이소애
	2부 헌금위원		박홍재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다음주식당봉사	정영선 김애순 김경혜 안현숙 김재영 장재영 김정훈 곽상준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1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정우